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감경하는 건 축법 시행령이 2월 12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 '15.11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세부 실시요령』 후속조치 및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여러 차례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 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 신고위반(100분의 70), 건폐율(100분의 80), 용적률 초과(100분의 90), 무허가(100/100)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이 17%에서 25%를 납부하면 된다.

* (기준) 100분의 50 이내
→ (미신고) 100분의 50 이내 × 100분의 70 ×

50% = 17

→ (건폐율) 100분의 50 이내 × 100분의 80 × 50% = 20

→ (용적률) 100분의 50 이내 × 100분의 90 × 50% = 22

→ (무허가) 100분의 50 이내 × 100분의 100 × 50% = 25

** 부과기준 : (기준)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 이내

→ (개정)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00분의 50 이내) × 위반내용 × 50%(감경)

*** 예) 부과금액 200만 원일 경우 : (기준) 100만원 이내 → (개정) 17만원~25만원 이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제3대 본부장 취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월 1일(화) 제3대 신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서울대 수의학과 박봉균 교수가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해가 고향인 박봉균 본부장은 1957년 생으로 서울대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및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

으며, 미네소타주립대에서 돼지바이러스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인사는 '15년 2월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이 발표된 후 농식품부 최초 민간인 기관장 임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식물 병해충 예찰관리 △FTA 대응 및 검역 강화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동물용의약품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검역본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 전문성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2012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총회(IPVS : 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Congress)에 학술위원장과 부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분과 역학조사위원장, (사)대한수의학회 회장,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이론적 전문성과 함께 정책 실무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해당직위 최적임자가 선발되었다는 평이다.

신임 본부장은 “대한민국 가축질병 방역을 개선하고, 농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양돈질병 분야에서 쌓은 방역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한층 더 성숙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교육부와 함께 초·중·고교 개학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14~'15년 식중독 발생 학교 ▲전국 36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모든 초·중·고(10,248개교)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중 3월에는 6,000여 개교, 9월에는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 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학기 시작 후 학

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학 전 학교장, 영양(교)사 등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축산 농가 맞춤형 종합 상담’ 만족도 높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실시하는 ‘축산 농가 맞춤형 종합 상담’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정부3.0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돕고 새로운 기술 지원을 위해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우, 젓소, 돼지 3개 축종, 농업인 1,470명을 대상으로 31회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 6명~8명이 각 시·군을 찾아가 상담했다.

전체 상담자 중 680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4.6%(4.62점, 5점 만점)의 만족도를 보여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인 만족도는 농가와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길수록, 농장에서 가축을 보며 함께 개선 방안을 찾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한 ‘방문 상담’은 하

루에 농장 세 곳을 찾아가 현장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상담 내용을 잘 활용하는지 알아보는 ‘현장 적용도’를 전화로 함께 조사해 상담의 질을 높였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육하는 가축 종류별로 선호하는 상담 분야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 농가는 송아지 가격 상승에 따른 번식(20.2%)과 사양 관리(18.9%)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낙농가는 유질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양 관리(19.2%)와 송아지 출산 능력 향상을 위한 번식 분야(19.2%)에 관심이 많았다.

돼지 농가는 생산성(MSY)향상을 위한 번식 관리와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등 소모성 질환 방지를 위한 질병 예방 기술(22.5%)에 관심이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명숙 기술지원과장은 “올해는 사전 조사를 실시해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가들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라며, “종합 상담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농가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축산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키워 농가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신임 원장에 오성종 제주대 교수 취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 오성종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오성종 원장은 농촌진흥청 출신으로 지난 2011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생명환

경부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2012년 제주대학교 재직 시절 공동연구로 참여한 '돼지유전체 완전 해독 결과' 논문이 네이처(NATURE) 인터넛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는 등 축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왔다.

오성종 원장은 3월 2일 취임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국립축산과학원을 이끌게 된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6. 03. 04]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전 직원,
정부3.0 · 청렴실천 앞장 다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2월 15일(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 본원에서 100여 명의 임직원이 모여 신년조회를 가졌다.

직원 교육을 겸한 이번 조회는 국민 모두의 밥상에 안심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인 정부3.0 서비스의 적극적인 실천과 청렴실천 의지를 함께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을 갖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제1조건으로 HACCP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천한다는 청렴의식을 다지는 청렴서약서를 전 직원이 서약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으로 조영희 평택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정부3.0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천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고,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HACCP의 맞춤형 서비스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교수는 "정부3.0은 한마디로 국민과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HACCP 인증 업무야말로 선제적 · 능동적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데이터는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등에 목적이 있다"며 "인증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안전먹거리 국가DB구축사업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식품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만 원장은 직원 대상으로 '2016 식약처 업무추진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HACCP 인증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라며 "기업체서 해썹(HACCP)를 적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 기술지도 등 현장위주 활동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 『슈퍼마켓 트레이드쇼 2016』
한국관 출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2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도쿄 빅사이트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 『슈퍼마켓 트레이드쇼 2016』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현지 바이어와 농식품 수출상담에 들어갔다.

동 박람회에는 일본 슈퍼마켓업체 단체인 신일본슈퍼마켓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해외 16개국 124개사를 포함해 총 1,918개사가 참여하고, 일본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비롯해 약 8만 5천여 명이 내방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이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K-FOOD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능성 식품업체인 비케이바이오 등 25개 업체가 참여하여 고추장 등 한국식품 기초 조미료, 삼계탕, 유자차, 막걸리 등 기존 인기 품목과 들기름을 비롯한 기능성 건강식품 등 일본 트렌드에 맞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식품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농식품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상품 내용, 규격,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박람회는 일본 전국 슈퍼마켓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담회로, 최종 결정자인 유통

업체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수출주문이 바로 성사되는, 현장 결정력이 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T 배용호 도쿄지사장은 "이번 박람회는 일본 전역의 유통업체 바이어가 대규모로 모이는 중요 행사"라며 "새해부터 쉽 없이 일본 시장에 도전하는 이 여세를 몰아 올 한 해 한국 농식품의 일본 수출 회복을 위한 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 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농협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가두캠페인 전개

농협(회장 최원병)은 지난 2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 등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맞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금융지주도 동참하여 범농협 차원의 캠페인으로 진행되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 농·축산물'을 주제로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날개 포장된 안심사과 2천개, 우유 1천개, 반숙계란(2입) 1천개, 여행용 물티슈 1천개를 배부했다. 특히, 민족 대 명절 설을 앞두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축산물 애용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농협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과 김태환 축산경

제대표이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농·축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까운 하나로마트 매장과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인 농협a마켓, 공영TV홈쇼핑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나눔 행사와 더불어 가금류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홍보, NH방역지원단의 설 명절 농장 특별소독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오리햄샌드위치